

포도나무 가지

| 김흥호 | 이화여대 명예철학 박사 |

‘내’가 없이 나의 근본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것이 생명의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편집자 주).



요한복음 15:5~10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전에 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으니까 포도를 ‘길’이라고 해도 좋지요. 나는 이 길이 기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도’입니다. 다 같은 ‘도’예요. 기도, 포도, 다 같이 길 도(道) 자입니다. ‘포도(葡萄)’의 ‘포’ 자를 잡을 ‘포’로 해서 길을 잡았다는 뜻의 ‘포도(捕道)’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한문자로는 ‘도(道)’라고 하고, 히랍말로는 ‘로고스(Logos)’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처음이 “태초에 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라고 하는 종교까지 나오게 됐어요. ‘도’, 이 길이란 무엇인가. 내가 있기 전, 그것이 길입니다. 또 내가 간 후, 그것이 길이에요. 유명한 서산대사가 이런 말을 했지요. “80년 전 거시아(八十年前 渠是我)요, 80년 후 거시아(八十年後 渠是我)”라고. 80년 전 그것이 나고, 80년 후 그것이 나다. 낱기 전이 나이고, 난 후가 나이다. 이 ‘나’이다 할 때 동양 사람들은 도 자를 씁니다. 불교에선 언제나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는데, “손뼉을 치기 전에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손바닥의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두 “나 태어나기 전에” 혹은 “나 죽은 후에” 그런 말입니다.

또 “내가 태어나기 전의 네 얼굴을 보았느냐”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 우주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로고스가 있었고, 우주가 다 끝난 후에도 로고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기 전이 무엇입니까. 포도지요. 이 나무가 끝난 후는 무엇입니까. 역시 포도입니다. 이렇게 포도도 하나의 ‘도’입니다. 요새 말로 ‘실존’이라고도 하고 ‘존재’라고도 합니다.

포도가 ‘도’라고 하면 나무는 ‘진리’가 되지요. 진리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흔히 쓰이는 것이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나무라는 말의 ‘나’는 나라는 말이고, ‘무’는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없다, 이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이치만 있지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정도 없고, 욕심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이 ‘나 없는 세계’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을 씁니다. 진리의 세계란 나 없는 세계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나무를 진리라고 생각해도 좋지요. 가지를,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갓 뜯 것이 생명입니다. 나무에서 터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보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왔는데, 바울 선생 얘기를 했어요. 요전에도 바울 선생의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바울 선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까. 지루하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같은 소리를 ‘갓 뜯 소리’라고 생각해요.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라고 할 때의 ‘갓’이고, ‘뜯’이라고 하는 것은 ‘씩이 뜯다’의 ‘뜯’이지요. 그래서 같은 소리는 ‘갓 뜯 소리’가 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지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갓 뜯 것입니다. 늘 같은 소리이지요. 내가 요한복음 6장, 14장을 말할 때나 오늘 15장을 말하고 있을 때나 다 같은 소리예요. 다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같은’ 소리로 들어주는 동시에 ‘갓 뜯’ 소리로 들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갓 뜯 것, 생명의 가지에 싹이 갓 뜯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

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생명이란 갓 뜬 것인데, 갓 뜬 것이 커진 것, 그것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거기까지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는 말을 또 합니다. 가지야 나무에 붙어 있지,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지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예수가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지라고 할 때, 내가 과연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예수라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천 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와 나라고 하는 가지가 2천 년의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유대 나라와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세계 최대 성인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소인 중의 소인이지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인간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똑 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셨을 때 벌써 예수님의 마음자리와 제자들의 마음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사랑하는데 가롯 유다는 선생님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으니 거기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어 있다는 말을 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시간을 초월해야지요. 시간을 초월한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시나, 지금 사시나, 앞으로 만 년 후에 사시나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공간

을 초월해야지요. 그리고 인간도 초월해야겠지요.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나, 그곳에 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동시성(同時性)’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2천 년 후의 우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5장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높은 산, 거친 들, 초목, 궁궐,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즉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하면 예수를 2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친구라면 옆에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친구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과 우리는 ‘동시성’에 사는 것이 됩니다. 「주보」 4면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있지요. 영이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 니다. 성령도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함께 서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우주가 되기 이전의 그 무엇, 그리고 우주가 끝난 이후의 그 무엇을 모두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통하는 세계이지요.

발효를 통해서 소아는 대아가 되고 썩어질 생명이 썩지 않을 생명으로
탈바꿈한다. 발효의 비밀은 밀봉에 있고, 밀봉의 비밀은 하나의
문제 속에 자기를 몰입시키는 일이다. 몰입, 그것이 밀봉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단 발효하면 무색투명한 자아가 된다.

시간, 공간, 인간은 막힌 세계가 아닙니다. 이 시간, 공간, 인간이
다 통한 세계입니다. 내가 성경반에 6년을 다녀보니까 항상 같은 소리
입니다. 같은 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거기에 통하고 있
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통하니까 같은 소리이지 통하지 않으면 어떻
게 같은 소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다
는 말이지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알게 된다는 것
이지요.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통해진다는 것이지요. 예
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예수님의 삶이
알아지고 통해지는 것이지 별것 없습니다.

영이라는 말 대신에 칸트 같은 사람은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하면 자유이지요. 바울 선생은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이란 무엇입니까. 통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사랑입니
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을 요한 같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
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그리고 자유입니다.

영을 우리말로는 ‘얼’이라고 합니다. ‘얼’을 나는 ‘어른’이라는 말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라는 것이 얼이지요. 어른, 우리 어머니를 생각

합시다. 우리 어머니는 어른이지요. 그 어른이 동시에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어린애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애를 아들 ‘자(子)’와 있을 ‘유(有)’로 해서 자유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유입니다. 또 어머니 가슴에서는 젖이 줄줄 나오지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자유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격을 굉장히 높이 생각할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영입니다. 사랑입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이지요.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됩니까. 밥 먹으면 어른이 되질 별 것 있습니까. 아이들이 밥 먹으면 자꾸자꾸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자꾸 자라면서 어른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또 속사람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라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판판이 되고 만다는 뜻이지요.

오늘 「주보」에 ‘포도나무’라 해서 포도에 대한 얘기를 써보았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효(醱酵)’를 한 문으로 쓸 줄 알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발효는 출발한다는 발(發)자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효(孝) 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효 얘기를 쓴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 알에는 발효하는 누룩이 있다고 한다.” 포도를 수확할 때 거기엔 이미 발효하는 누룩이 있다는 것이지요. “발효시키는 균은 공기 속 어디에나 있는 모양이다.” 오늘 성경시간에 ‘무소부재(無所不在)’라는 말을 썼는데, 어디에나 있어요. “포도알에서 불순물만 제거하고 그릇 속에 넣어 밀봉만 하면 어디에서나 발효한다. 발효할 때는 속에서 탄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끓어오르는 동안에 일체의 부패균이 죽어버린다.” 부글부글 끓는 동안에 그 속에 있던 균이 다 죽는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투명한 포도주가 된다. 일단 포도주가 되면 천 년 가고, 만 년도 간다.” 썩을 생명이 썩지 않을 생명으로 바뀌는 길은 발효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롬 7:24) 바울의 말이지요. 이것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끓는 마지막 단계이지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발효의 극치에 도달한 것이지요. 지금 발효의 극치에 도달했어요. “영원한 생명에는 털끝만한 죄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에는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발효가 끝나면 곧 투명한 감사가 뒤따른다.” 로마서 7장 2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포도가 죽고, 포도주로 다시 산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포도주는 술이다. 불이 펄펄 붙는 술이다.” 아까 말한 영이 무엇인가. 불이 펄펄 붙는 것이지요. 사람도 불이 펄펄 붙는 것이지요. “인생을 영원한 불이 되게 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포도가 포도주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죄인이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효하는 비밀은 오직 밀봉뿐이다.” 포도를 항아리에 넣고 비닐 같은 것으로 바람이 절대 안 들어가게 봉해야 한다는 거지요. 종교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밀봉의 세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용히 예배를 보

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밀봉한 항아리 아니겠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밀봉하여야 한다. 새 부대란 새 종교라고 해도 좋고, 새 문제라고 해도 좋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요. 우리에게 새 종교가 필요합니다. 낡은 종교로서는 부글부글 끓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새 문제란 별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지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이지요. 이 문제 속에 나의 정열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하이데거는 “죽음에의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열을 쏟는 것이지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정열을 쏟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여 파들어 간다. 그리하여 죽음을 풀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발효하는 경험입니다. “이 발효를 통해서 소아는 대아가 되고 썩어질 생명이 썩지 않을 생명으로 탈바꿈을 한다.”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말이지요. “발효한 것이다. 발효의 비밀은 밀봉에 있고, 밀봉의 비밀은 하나의 문제 속에 자기를 몰입시키는 일이다. 몰입, 그것이 밀봉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단 발효하면 무색투명한 자아가 된다.”

한마디만 첨부할 것은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글부글 끓는 생활인데,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과 기도와 성경입니다. 도를 기도라 하고, 진리를 성경이라 하고, 생명을 찬송이라 하지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계속해 나가다보면 나중에는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 옆집에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생을 비관하고 늘 우는 소리만 했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 찬송을 부르고 계셨어요. 늘 495장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결국 495장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지금은 여기저기 보지만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말이 나중에는 한마디로 되고 맙니다. 그 한마디를 자꾸 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 한마디를 자꾸 파들어 가다보면 내가 그 한마디가 되고 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세계가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이지요. 곧 영원한 생명의 세계, 자유의 세계, 사랑의 세계, 어른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된 사람들에요. 된 사람,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못된 놈들, 어른이 못된 것이지요. 된 사람, 요사이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 사람입니까?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쫓아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성경이 된 사람,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포도나무 가지이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끝) 

- 이 글은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 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